

# 무실(務實)의 경세가 유회당(有懷堂) 권이진

유회당(有懷堂)은 대전 중구 운남로 85번길 32-180에 위치한다. 유회당(有懷堂)은 권이진(權以鎮, 1668~1734)이 부모님 묘소 바로 밑에 부모님 제사를 지내면서 독서와 교육을 하기 위해 1714년(숙종 40)에 지은 건물이다.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회당은 권이진의 호이기도 하다. 기궁재(奇窮齋)는 유회당과 삼근정사(三近精舍)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齋室)이다. 장판각(藏板閣)에는 권이진의 유회당집 판각 246판(대전시 유형문화재 20호)이 보관되어 있다. 삼근정사는 대전지방의 유일한 시묘소로서 묘소와 집과 천석(泉石)이 세 곳이 가깝다 하여 삼근정사라고 이름 지었다.(하거원중수기 何去園重修記) 또한 권이진이 유회당 일대를 하거원(何去園)이라 부른 이유는 부모님 묘소가 있는 이곳을 버리고 어찌 떠날 수 있겠는가 즉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유회(有懷)는 시경(詩經) 소완(小宛)이라는 시에서 따온 말로 “날이 새도록 뒤척이면서 두 분을 그리워한다”(明發不寐有懷二人)는 뜻이다.

유회당(有懷堂) 권이진은 탄옹(炭翁) 권시(權諤, 1604~1672)의 손자이다. 탄옹 권시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사람들이 공자의 수제자 안자(顏子)에 비유했던 인물이다. 부친 만회(晚悔) 권득기(權得己)로부터 물려받은 가학(家學)과 처삼촌이었던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誠, 1573년~1635)의 문하에 출입하여 예학(禮學)의 일가를 이루었다.

탄옹 권시는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 1586~1647) 이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등과 함께 학생 권시는 이를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뜻과 행실이 맑고 깨끗합니다.(인조14년 6월 11일) 라고 인조(仁祖)에게 친절하면서 벼슬길에 나갔다. 권시는 공조좌랑, 사헌부 집의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당대의 거유(巨儒)들이었던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 1610~1669), 초려(草廬) 이우태(李惟泰, 1607~1684) 등은 물론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나 백호(白湖) 윤휴(尹鑑, 1617~1680) 등 남인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다.

권시는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 권기(權惜)는 송준길 문하에서 공부한 후 43살 때(1665)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대사간에 올랐다. 차남 권유(權惟)는 송시열의 장녀와 결혼했다. 큰딸은 윤선거의 아들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과 혼인하고, 둘째딸은 유휴의 큰아들 윤의제(尹義濟, 1640~1680)와 화족을 밝혔다. 그러니까 당대의 거유들이 송시열과 윤선거와 유휴가 모두 사돈지간이었다. 당대 조선 최고의 혼례관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남은 송준길과 사승(師承)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윤증은 사위였으니 권시는 충청도 일대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 당대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거물들과 폭넓은 인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다.

손자인 권이진의 입장에서 보면 우암 송시열은 외조부가 되고 명재 윤증은 고모부가 되며 윤휴는



천성공 권유의 신도비이다. 비문은 사위인 명재 윤증이 썼다.



유회당



유회당 현판

고모부의 아버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이 외조부이고 소론의 영수 명재 윤증이 고모부가 된다. 그래서 권이진은 어려서는 외조부한테 공부하고 훗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할아버지 권시의 제자이자 고모부인 윤증의 문하에서 수학한다. 일제강점기 학자 강효석이 1924년에 우리나라 역대 인물에 대한 전거를 밝히기 위해 간행한 전고대방(典故大方)이라는 서책에는 권이진은 윤증의 문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권이진은 혈연과 학연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노론, 소론, 남인과 복잡하게 얹혀 있었다.

오직 주자학만을 숭상하고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 이상 오를 정도로 당대 정계를 주름잡았던 우암 송시열의 외손자로서 또한 소론의 영수인 명재 윤증을 고모부로 둔 권이진은 당쟁이 격렬했던 정계와 학계에서 처신하기가 여간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권이진은 11살에 어머니가 별세하고 17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증조부인 만회(萬晦) 권득기(權得己)가 자손들에게 남긴 “모든 일은 반드시 시울은 것을 추구하고 제2의 의리로 떨어지지 말라”(每事必求是無落第二義)는 유훈에만 온 마음을 기울일 뿐 과거공부는 하려 하지 않았다.(국역유회당집 3. 연보 권1) 여기에 22살 때(1689) 외조부 우암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갈 때 연산, 여산, 삼례, 태인, 장성, 나주, 영암을 거쳐 강진까지 동행하며 강진 만덕사에서 5일 동안 함께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10월에 외조부가 한양으로 소환되어 정읍에 이르자 사사(賜死)의 명(命)이 떨어져 외조부가 사약을 먹고 절명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장례까지 치르고 돌아온다. 정지의 비정함을 저질하게 느꼈으리라. 고모부 명재 윤증역시 임종에 이르러서 권이진에게 벼슬길에 나가지 말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백부는 권이진에게 과거 공부할 것을 권유한다. 그는 백부의 권유대로 시끌에 묻혀 차사로 은거하는 삶을 포기하고 과거공부에 열중한 나머지 드디어 27살(1694)에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정계로 출사한다. 사헌부 지평, 동래부사, 승지, 경상감사, 학경도 관찰사, 호조판서, 공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다.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경세가는 시급한 현안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아니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곤란한 경우에 처하거나 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법한데 조선왕조실록 등 그 어디에도 권이진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크게 문제를 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권이진이 28살부터 관료생활을 시작하여 67세로 고종하기까지 39여년 동안 당쟁의 격류 속에서도 대단히 신중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송시열의 외손자가 꼽지 않게 보였던 모양이다. 과거시험을 응시할 때부터 따라온 눈초리로 바라본다. “권이진(權以鎮)은 송시열의 외손(外孫)으로 예경(禮經)의 의리를 전혀 모든 채 조금도 통한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선정(先正: 송시열)을 해친 자가 고관(考官)이 되었는데도 기꺼이 입장(入場)하여 드디어 합격되었습니다. 기자(舉子)와 고관(考官) 사이에 혐의가 있으면, 피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날의 고관은 권이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원수인데도 이렇게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잊고 의리를 배반한 사람은 극선(極選)해야 하는 경악(經懼)의 자리에 둘 수 없으니, 수찬(修撰) 권이진을 흥문록(弘文錄)에서 삭제시키소서.”(숙종 30년 2월 22일)라고 임금에게 고жал 정도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유생 김범갑 등이 상소하여 도봉서원 향사에서 송시열을 내친 사건에 때문에 권이진이 상소하자 사람들은 송시열의 외손 권이진을 주목하며 도봉서원 향사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항에 대해 알가왈부하며 그 처신을 비판한다. “권이진은 송시열의 외손(外孫)인데, 그의 당(黨)은 곧 송시열을 공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당에게 용납받지 못했는데도, 시배(時輩)에게 밭을 불었다. 시배 또한 송시열을 배척하고 헐뜯는 자가 많았는데, 권이진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변명함이 없어 그들의 도움을 받으나, 사람들이 흑비루하게 여기기도 하였다.”(경종 3년 3월 2일)라고.

그러나 권이진은 사람들의 눈초리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가 쓴 시를 읽어보자.

온 세상이 당론을 좋아하여  
擊世好黨論 거세호당론  
옳고 그름은 따져보지도 않네  
是非不可稽 시비불가계  
옳게 여기면 북쪽 언덕 못보고  
是不見北嶺 시불견북반  
그르게 여기면 동쪽 벼랑만 아네  
非但知東崖 비단지동애  
인심이 날로 당론에 빠져드니  
人心日陷溺 인심일함닉  
분개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네  
慷慨摧我懷 강개최아회  
평상시에 이런 일은 싫어하여  
尋常惡此事 심상오차사  
우리 집에는 이미 끝난 것이네  
我家世已闢 아가세이미  
영화는 비록 이르지 않는다 해도  
榮華縱不至 영화종부지  
재양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네  
禍難非所罹 화난비소리  
군자는 자신의 뜻만 행하면 되지  
君子行其志 군자행기지



장판각

어찌 다른 사람에게 얹매일 것인가  
寧為他人羈 영위타인기  
평소에 가졌던 충효의 마음은  
平生忠孝心 평생충효심  
신중하게 지키며 허물지 말아야지  
慎莫有缺虧 심막유결휴

(국역유회당집 1, 권1, 시, 次陶靖詩十二首之二정절시십이수)

온 세상이 당론에 빠져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는다. 자가만 옳고 남은 그다. 우리 당만 맞고 다른 당은 틀리다. 모두 한쪽 벽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한다. 유회당 집안은 동쪽이든 북쪽이든 훠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군자는 자신의 뜻만 실천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얹매일 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 오직 충효의 마음만은 신중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영조 앞에서도 “소론이나 노론을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신은 바로 고(故) 대사헌 권시(權諤)의 손자이고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외손입니다. 신의 선조가 일찍이 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론이 심하면 그 폐해가 장차 아비와 임금을 시해하는 데 이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은 편파적인 의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은 조금도 당색에 치우친 의론을 하려는 데 뜻을 둔 것이 아닙니다.”(승정원일기, 영조 4년 무신(1728) 1월 20일)라고 말한다.

권이진은 소론이니 노론이니 하는 것도 아예 모른다고 선언한다. 일찍이 선조로부터 당론의 폐단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편파적인 의론을 한 적도 없고 조금이라도 당색에 치우친 의론을 하려고 뜻은 적도 없다고 말한다.

권이진이 확고하게 견지하는 무편무당(無偏無黨)한 태도는 영의정 이광좌(1674~1740)가 “권이진이 조야(草野)에서 조정에 들어와 당원(黨援)이 없이 무처럼 외로이 서서 오직 일단의 충성만 있으므로 간곡하게 말을 다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 등이 거리낌없이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신 등이 아무하여 구차하게 용납받으려 한다고 말했으니, 이와 같은 신하를 어찌 얻기가 쉽겠습니까?”(영조 4년 2월 25일)라고 한 말에서도 그가 어떠한 자세로 관료생활에 임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영조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이진에게 “영남은 번병(藩屏) 가운데 가장 큰 지역으로 예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뽑기 어려웠다. 선조(先朝) 때 모두 천거하도록 특별히 윤허하였는데 오늘날 통달한 인재를 얻게 되었다. 대개 조정에서 두루 헤아려 보니 경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었다.”(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갑진(1724) 9월 10일)라고 평가하며 경상감사 교서를 내린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국장 권행완

## 나노실리카(Nano-Silica)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을 돋는 조이바이오 입니다

조이케어 (살균 · 탈취제)  
살균 · 탈취제

씨리-콤(축산생장급이수)  
보조사료

씨오-팜(수용성 실리카 식물성장제)

씨오-삼·인삼원(수용성 실리카 식물성장제)

씨리-랜드(수용성 실리카 토양개량제)  
식물성장제

**조이바이오(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51 대표이사 / 회장 권광택  
Tel: 043) 716-0073 Fax: 043) 716-0074 E-mail: jb0073@joybio.co.kr www.joybio.co.kr

사람, 식물, 가축, 어류에 유익한 제품을 생산하며, 안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이바이오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 이익을 누리고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조이바이오(주) 농업회사법인 전 임직원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조건과 자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이바이오는 살균·탈취제, 보조사료, 식물성장제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OEM 제품)으로도 생산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허증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조이바이오 와 함께 동반 성장 할 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바이오(주) 농업회사법인 배상